생활체육공원 '동호회 전유물' 전락

광주 자치구, 예산부족 시설 유료화
쫓겨난 시민들 "왜 지었느냐" 분통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생활체육공원이 '돈을 낸' 동호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공원을 조성한 일선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일부 시설을 유료화하면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주시 동구청이 지난달 8일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한 용산동 생활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 축구장(가로 50m·세로 90m)이 설치돼 있지만, 시간당 1만5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동구청으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연간 운영비 2천500여만원을 마련할 재원이 없어 이용객들에게 돈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 매일 새벽 6시~오후 8시까지 문을 열지만, 동구 관내 18개 축구 동호회 등이 번갈아 이용하는데다 아이들에게 몇 십분 동안 공을 차게하려고 예약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부 전경아씨는 동구청 홈페이지에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축구 할 마음으로 공원에 갔는데 공 한번 차 보지 못하고 조기축구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났다"면서 "한 시간을 기다린 후 관리인에게 항의했더니 '아줌마도 돈 내고 하세요'라는 말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광산구청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한 '첨단생활체육공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광산구청은 실내 배드민턴장 5면(각 면 가로 13.4m·세로 6.1m)을 '광산구 생활체육협의회-배드민턴 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매달 200만원 가까이 드는 운영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다.

연합회는 배드민턴 이용객들에게 ▲1일(2시간) 2천원 ▲한 달 이용시 3만원을 받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생활체육 시설이 돈을 낸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개장한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생활체육공원'(예산 31억원)의 축구장은 아예 경기를 할 수 없는 '해괴한' 공간이 됐다. 이 축구장은 가로 72m·세로 108m의 국제규격 천연잔디 구장. 서구청은 그러나 잔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축구경기를 막고 있다.

서구청은 일반인들에게는 소규모로 공을 차는 것을 허용하는 등 축구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 이행실씨는 "정작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용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용료 부과는 최소한의 관리비를 부담토록 한 것이다"면서 "이번달부터 ' 무료 어린이 축구교실'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895〉 김종두

'정신질환' 5·18 진압군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시위현장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얻어 26년째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김동관(48·경기도 시흥시)씨가 지난달 31일 국가보훈처 수원지청에 국가유공자(공무중 부상 군경)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대리인인 전성 변호사는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김씨가 부대 상관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전령이었던 김씨의 경우 '시민에게 총을 발사하라'는 상관지시에 불복해 수차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는 1981년 11월 제대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고 현재 수원 아주대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외상후스트레스장애(外傷後-障碍·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전쟁·천재지변·화재·강간·비행기 등에 의한 사고 이후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환청·불면증·자해·알코올 중독·무력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완도 유흥주점 화재 유족들 소방파출소 점거 집기 부숴

"소방차 늑장 대응" 항의 시위

완도 유흥주점 화재〈본보 7월31일자 7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소방서의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이 숨졌다"며 소방파출소를 찾아 시위를 벌였다.

화재 사망자 4명의 유족과 친지 등 4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께 '소방차 늑장대응으로 일가족 몰살'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파출소에 내건 뒤 1시간 가량 격렬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가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가족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소방대원 일부는 불이 난 광경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소방파출소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출동시간·인원·행동방침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완도소방파출소 관계자는 "출동한 진압대원들은 현장에 들어갔다가 불길이 거세 다시 나왔는데, 차량 운전 및 급수 요원 등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119 소방 체험 훈련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연맹장 서재의) 대원 10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박3일간 광주소방학교에 입소, 암벽 등반·화재진압·인공호흡 등 119 소방체험 훈련을 받았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신지체 생활보조금 4,300만원 전직 마을이장 부부가 횡령

정신지체 부부의 생활보조금을 7년여 동안 가로채 온 전직 마을이장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함평 경찰은 지난달 31일 정신지체 부부의 기초생활보조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53·함평군 엄다면)씨와 부인 이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 1999년 2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같은 동네 주민인 김모(47)씨의 통장에서 공공근로 임금 390만원과 기초생활보조금 3천900여만원 등 4천300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직 마을이장이었던 김씨는 금전 관리를 해준다고 속인 뒤 통장과 도장을 7년여 동안 관리해 오면서 부부가 그동안 벌어들인 공공근로 임금과 기초생활보조금을 인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 김씨 부부에게 자신의 농사일을 대신 시키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주는 등 호감을 사오며 보호자 노릇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씨 부부는 모두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그동안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으며, 최근 면사무소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등록을 추진 중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술 취한 행인 폭행 치사

광주 북부경찰은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 숨지게 한 남모(50·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20분께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뇌성마비·간질 등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딸(16)과 함께 쉬고 있던 중 만취한 박모(47·담양군 창평면)씨가 다가와 큰소리를 지르자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장애가 있어 꼭 안거나 업고 있지 않으면 심하게 발작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만 해도 심하게 놀란다"면서 "박씨가 뒤를 따라오면서까지 큰소리를 질러 홧김에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3명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불법 거래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31일 권모(57·목포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오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물놀이 익사 잇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4시20분께 진도군 의신면 소산도 앞바다에서 이 마을 장모(17·고 1)군이 수영 미숙으로 숨졌다.

이날 새벽 0시50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오모(여·57·경기도 고양시)씨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119대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앞서 30일에도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노모(17)군 등 2명이 익사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예배 중 돈 훔치다 목사 가족에 '덜미'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31일 교회에서 금품을 훔친 이모(여·29·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 H교회에서 목사 부인 A(여·51)씨의 성경책 안에 있던 현금 9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이씨는 설교 중이던 목사가 우연히 절도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는데, 30여 m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목사 아들(24)에 의해 붙잡혔다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